

# 정읍시, '임산부의 날' 맞아 배려 캠페인 나서

### 산후우울증 검사·모유 수유 클리닉 등 운영

정읍시보건소는 지난 10월 제14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정읍우체국 광장에서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산부의 낯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격려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모자보건법에 의해 2005년도에 제정됐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가을의 중심 10월과 아이가 엄마 배 속에서 자라는 기간 10개월의 의미를 담아 10월 10일로 정했다.

이날 시보건소는 임산부의 심신 안정과 태교를 위한 '내 아이에게 전해질 엄마 마음 적기' 체험



정읍시보건소는 지난 10월 제14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정읍우체국 광장에서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진행했다.

부스를 운영하고 산후우울증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8일에는 임산부와 수유부 20명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 클리닉을 운영하며 임산부 구강검진도 시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맞춤형 임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임신부앰블럼(배려표시)이 새겨진 가방 고리와 기념품을 제공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갑수룩 심각해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임신을 축하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많은 시민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완주서에 온(溫)더하기 기금 300만원 전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은 11일 완주경찰서에 온(溫)더하기 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온(溫)더하기 기금 전달은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범죄피해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이고 빠른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문정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과 송호림 완주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양측은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역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들이 하루 빨리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2015년 10월 완주경찰서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5년째 꾸준히 온 더하기 기금을 전달해 오고 있는 중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 남원시, 경찰발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지난 10일 4층 민인홀에서 서장 및 각 과장 등 간부와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 배석기) 위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내 치안소식 등을 공유하고 2019년 남원경찰의 중점 추진업무에 대해 상호 발전적 의견을 청취하며 유기적 협력체계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경찰서 중간관리자들과 위원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남원시간이 되었다.

한편, 함현배 서장은 "올 한해 경찰발전위원회의 협력체력으로 치안의 발전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위원들의 애검애무는 조언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익산경찰서, 범죄 피해 예방교실개최

익산경찰서(서장 박현수)는 지난 11일 익산역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서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30여명을 상대로 범죄 피해 예방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범죄피해 예방교실에서는 결혼이주 여성과 체류 외국인들이 범죄 피해가 발생 할 경우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는 112신고 요령,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폐지에 따른 사전 신고제, 서민3S 사기 예방 등을 홍보했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결혼이주여성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미술공예와 색소폰 연주 등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주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경찰이 정말 정성을 다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안심되었다"고 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 남원시, 성범죄예방 및 실종예방 사전점검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제27회 흥부제(11월~13일)의 성공 개최를 위해 성범죄와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았다.

남원경찰의 이번 점검에서는 흥부제 기간 성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촬영을 근절하고자 불법촬영 탐지기(렌즈형 2대, 전파형 1대)를 활용, 시장의 광장 등 행사장 주변 공중화장실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등이었다.

또한 축제장에서 아동 등의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해 주요 행사장 중심 특성을 고려한 자체지침 마련 여부, 각 행사장 직원별 임무 사전지정 여부 점검 및 경보 발령시 안내방송과 스피커·전광판 현출을 통해 초기 총력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익산드론축구단, 육군참모총장배 유소년 전국드론축구대회 조 2위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최근 계룡대 비상활주로 내에서 개최된 2019 육군참모총장배 유소년 전국드론축구대회에 참가한 익산드론축구단 학생들이 대회 조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북도와 익산시의 지원으로 떠오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사업-익산드론축구단'을 매주 토요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창의융합교육연구회와 MOU를 체결해 다문화·비다문화화를 넘어 청소년들이 함께 소통하며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정훈 센터장은 "장단한시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국대회 출전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역 내 드론축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내 청소년의 문화 향유를 위한 체계적인 드론 교육을 통해 드론축구단이 세계화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 순창군 군립도서관, '섬진강무지개물고기' 독서캠프 열어

순창군 군립도서관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섬진강무지개물고기' 독서캠프를 섬진강향가오토캠핑장에서 연다.

군은 조순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인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을 할 계획이어서, 지난해와 다르게 캠프 자체에 많은 의미를 담았다.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인문독서 문화를 경험하기 어려운 계층에 군이 적극 나서서 문화경험에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참가대상을 사회적 배려대상으로 한정했다.

또한, 이번 캠프는 순창군의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을 비롯한 전주, 남원, 임실군과 광주, 담양, 곡성군에 이르는 '순창과 도시를 잇는 캠프'로 전라권의 청소년들이 모두 다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독서와 글쓰기 활동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알리고 청소년의 독서능력을 높이는 이번 행사에 군은 국비를 포함하여 5천여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1차 2일씩 총 2차로 나눠 열리며, 1회차 마다 각 60명씩 총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차 마감은 10월 18일까지, 2차 마감은 11월 1일까지다.

/순창=이왕원 기자

### 알림

▲제2회 위풍당당 전국실버가요제= 일시: 10월 19일(토) 오후 2시, 장소: 전주 흥남문 문화광장, 주최: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전주매일신문사

## 임실군 덕치면행복보장협, '7080 소풍가는 길' 섬진강변 걷기행사

임실군 덕치면행복보장협(회장)은 10일 덕치면 내 70세 이상 어르신 200여명과 함께 제5회 '7080 소풍가는 길' 섬진강변 걷기행사를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덕치면 풍물단의 흥겨운 가락으로 행사시작을 알리고, 건강체조와 문화 해설사의 아름다운 섬진강 이야기로 곁들여져 행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걷기코스는 장산마을 데크에서 출발하여 천담권역 방문자센터 구간으로 약 2km로 약 1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행사는 바쁜 농사철에도 불구하고, 덕치면 이장단, 덕치면 주민자치위원회, 덕치면 체육회, 덕

치면 의용소방대등의 자원봉사가 더해져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 거동하기도 어렵고 가을이 이만큼 다가오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나와서 바깥바람을 쐬니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박정규 민간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어릴 적 소풍을 오신 것처럼 기뻐하셔서 보람차고 뿌듯한 하루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르신들이 밝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철희 덕치면장은 "이번 걷기 행사를 통해 어르



선들이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행진에서도 농촌노인들의 삶의 질 만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종영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